

한부모가족의 생활지원 주거대안*

-코하우징을 중심으로-

A Life-supportive Housing Alternative for Single-parent Family

-Focused on Cohousing-

가톨릭대학교 생활과학부 소비자·주거학 전공

교수 최정신**

Division. of Consumer & Housing Studies, Faculty of Human Ecology, The Catholic University of Korea

Professor : Choi, Jung-Shin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plore a life-supportive housing alternative for single-parent family, focused on cohousing. Single-parent family is considerably increasing according to diverse social changes. In foreign countries, for instance, Scandinavian countries where dual-income households and single-parent families occupy comparatively higher proportion of the whole households, cohousing has been implemented as one of the life-supportive housing alternatives. Cohousing community has been developed aiming to reduce burden of housework, child-care and loneliness through mutual support amongst inhabitants. Opinions of single-parent families are described in this study in order to explore any possibility of development of cohousing for single-parent families for their well-being in Korea. The study was fulfilled by intensive interviews with 4 heads of single-parent families as well as inhabitants of collective housing and cohousing in Korea and foreign countries.

▲주요어(key words) : 한부모가족(single-parent family), 양부모가족(two-parent family), 주거대안(housing alternative), 코하우징(cohousing), 생활지원(life-support)

1. 서론

1. 연구의 배경과 연구목적

한부모가족(single-parent family)은 배우자와의 이별, 이혼, 사별, 유기 등에 의해서 발생하며 현대 사회의 복잡한 구조 속에서는 점점 더 증가하는 추세이다. 한부모들은 배우자와의 이별 후에 그전에 그들이 수행해 왔던 역할 이외에 다른 역할까지 수행하도록 기대되어 가정생활의 모든 역할을 혼자서 맡아

야하는 어려운 처지에 놓이게 된다.

한부모가족이 경험하는 여러 가지 어려움 중에서도 특히 주거에 대해서 생각할 때 우리는 일반적으로 한부모가족들이 양부모가족들과 다른 주거규범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기 쉬운 경향이 있다. 그렇다면 과연 그들은 양부모가족(two-parent family)들보다 낮은 주거규범(housing norm)을 가지고 있는 것일까? 이에 대한 주제로 연구한 학자들의 의견은 그들이 양부모가족보다 더 많은 시간적, 경제적 제약을 받고 있어서 일반적으로 현재의 주거상황이 열악할 뿐이지 그들 자체의 주거규범이 낮은 것은 아니라는 점을 강조한다(Morris & Winter, 1978). 그러므로 주거를 논함에 있어서 한부모가족과 양부모가족이 서로 다른 요구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옳지 않으며, 단지 양부모가족이 분담하는 생계유지, 자녀양육이나 가사활동을 한부모가족에서는

* 이 논문은 2003년도 한국가정관리학회 연구비에 의해 수행되었으며, 한국가정관리학회 2003년도 춘계학술대회에서 발표한 내용을 수정, 보완한 것임.

** 주 저 자: 최정신 (E-mail: jjschoi@catholic.ac.kr)

부부 중 어느 한사람이 담당하기 때문에 시간적, 경제적으로 제약을 더 많이 받는다는 점이 차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더욱이 한부모가족의 가장(家長) 중 80% 이상이 여성이라는 점도 이들의 경제적 제약을 크게 하는 중요한 요인이 된다고 할 수 있다.

이상과 같은 맥락에서 본 연구에서는 한부모가족, 특히 경제적으로 열악한 상황에 있는 한부모가족만을 대상으로 하기보다는 어느 가정에서나 관심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자녀양육과 가사부담을 줄여줄 수 있는 생활지원체제로서의 주거 대안을 알아보려고 한다. 특히 직업을 가진 기혼여성의 비율이 높고 6가구 중의 1가구가 한부모가족인 스칸디나비아(김정자 외, 1984)와 미국에서 적용되고 있는 코하우징을 비롯하여 우리나라에서 운영되고 있는 동호인주택의 생활에 대하여 주민들과의 면접을 통하여 수집한 사례를 알아보고, 우리나라 한부모가족들을 대상으로 심층면접함으로써 그들이 요구하는 주거대안과 지원체제에 대한 제언을 하고자 한다.

2. 연구의 대상과 방법

본 연구의 면접대상은 생활보호대상의 영세가구가 아니며 본인이 자녀양육과 생계를 책임지고 있는 30~50대 가장 4명이다. 면접 중 본인들이 밝히기를 꺼려하는 가족상황과 이혼사유 등은 다루지 않았고 주로 주거대안에만 초점을 맞추어 질문하였다.

우리나라에는 아직까지 코하우징에 대한 소개가 없고 들어본 경험이 없는 경우가 대부분인 점을 감안하여 면접 전에 외국에서의 코하우징의 설립취지, 운영 사례 등을 자세히 소개한 뒤 면접하였다. 조사 시기는 2003년 3월~4월 사이였다.

본 연구는 면접 대상자의 수가 적어서 이들의 의견을 일반화하기에는 다소 무리가 있을 수 있다는 점을 시인한다. 그러나 1999년에 이미 실시한 국내·외의 코하우징과 동호인주택에 거주하는 주민과의 면접내용도 본 연구에서 부족한 피면접자의 수를 보충해 줄 수 있는 자료가 되리라 생각한다.

면접 대상자의 일반적 사항은 <표 1>과 같으며, 피면접자에게 소개한 코하우징에 대한 내용은 <표 2>와 같다.

II. 동호인주택과 코하우징의 주민생활 사례

1. 우리나라의 예

우리나라에서 한부모가족의 주거대안으로 비교적 많이 알려져 있는 것은 '모자원'이다. 그러나 모자원은 보편적인 한부모가족을 위한 주거대안이라기보다는 경제적으로 영세한 저소득층 가구, 특히 편모 가족만을 대상으로 한 특수 지원책이기 때문에 일반 가정에서는 입주 자격도 없을 뿐만 아니라 그 대상도 매우 제한적이라 본 연구에서 논하기에는 무리가 있다고 본다. 그러므로 본 장에서는

< 표 1 > 면접대상자의 일반적 사항

사례 1은 36세의 여성으로, 회원이다. 남편과 이혼한 후 8세, 10세의 남매 자녀를 기르고 있다.
 사례 2는 50세의 주부로, 현재 특별한 직업은 없고 남편과는 사별하였다. 24세의 아들과 살고 있다.
 사례 3은 42세의 여성으로 영업직이다. 남편과는 이혼하였고 13세와 10세의 두 아들을 기르고 있다.
 사례 4는 45세 여성으로 한식당에서 일하고 있다. 남편과는 이혼하였고 19세와 17세의 남매 자녀가 있다.

< 표 2 > 면접대상자에게 소개한 코하우징(cohousing) 내용

코하우징이란 주민들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공유공간(communal space)을 단지의 중심에 배치하고 그 점유비율을 크게 하며, 개인공간은 최소한의 필요공간만을 확보하도록 축소시켜 계획함으로써 주민 간에 공동체 의식을 강화시키고 자발적인 공동체 활동 참여를 기본으로 생활하는 공동주택단지이다. 그러므로 코하우징 단지에서는 주민간의 만남을 의도적으로 촉진시켜 서로 쉽게 어울려 살 수 있도록 다양한 단지구성 디자인이 시도되고 있다. 특히 코하우징은 부부와 자녀로 구성된 가족은 물론 독신자, 노인, 한부모가족 등이 다른 주민들과 상부상조하면서 살 수 있기 때문에 고독감을 덜고, 가사노동을 단순화시키고 아동양육에 이점이 있어서 스칸디나비아, 미국, 일본 등지에서 많이 적용되고 있는 주거단지이다.

고전적 의미의 코하우징은 1940년대에 스웨덴에서 여성해방운동의 일환으로, 직업을 가진 기혼여성의 조리작업과 가사노동 경감을 위하여 유료로 서비스를 공급받는 위탁관리의 형식에서 출발하였으나 1970년대 이후에 차츰 주민들이 스스로 공동 식사준비, 주거관리와 가사노동을 분담하는 자치관리 형식의 현대적인 코하우징으로 개발되었다. 이러한 현대적인 의미의 코하우징은 스웨덴과 덴마크에서 사회복지적 차원으로 장애인과 노인을 위한 주거의 한 가지 대안으로 더욱 활성화되었으며, 다른 유럽 국가들에 비하여 특히 여성의 사회참여가 높은 스칸디나비아 국가들에서 더욱 쉽게 찾아볼 수 있다.

코하우징의 소유권은 다양하여, 마음에 맞는 사람들끼리 모여서 개인소유의 주택단지를 만들 수도 있고 공동소유로 조합주택을 지을 수도 있으며, 경영임대주택단지로 지을 수도 있다. 그리고 노인연금기금에서는 회원들이 원하는 경우에 노인용 코하우징을 지어서 공급할 수도 있다.

보다 일반적인 예를 들어 동호인 주택에서 어린이 양육과 가사활동에 제약이 많은 한부모가족은 물론, 맞벌이 부부가 어떻게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하며 생활하는가를 현지 주민들을 만나 면담한 자료를 정리하여 그 사례를 알아보기로 한다.

1) 논현동 서당골

서울의 도심인 논현동에 있는 서당골은 1983년부터 1985년까지 2년에 걸쳐 마음 맞는 사람들이 모여서 이룩한 동호인 주택단지이다. 여기에는 8세대가 5개의 필지 450평을 공동 구입하여 4개 필지에 8가구를 위한 2층 주택 4동을 짓고 나머지 한 필지는 공동 마당으로 남겨두어 정원이나 바비큐, 어린이 놀이터 등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계획하였다. 서당골은 가까이에 모여 살지만 세대마다 최대한의 프라이버시를 확보할 수 있도록 디자인하였다.

서당골 주민들은 원래 남편들끼리 한 연구기관에 근무하던 비슷한 연령대의 사람들로서 고학력자들이고 현재는 다른 직장에서 교수나 연구원으로 일하고 있다. 주민들은 교환교수 또는 세미나 참석 차 외국에 나갈 일이 잦은 편으로, 주인이 집을 비울 때에는 이웃이 그 집을 대신해서 관리해 준다. 다음에는 누구의 차례가 될지 모르기 때문에 일종의 품앗이 개념이라고 할 수 있다.

특히 주부들 사이에서는 이웃 간에 더 많은 도움을 주고받는 편이다. 집을 비우고 나갈 때, 급한 일은 이웃에서 봐주고 학교에서 돌아온 자녀들을 대신 챙겨주는 경우가 많다고 한다. 혹시 갑자기 비가 오면 외출한 이웃집 마당에 널린 빨래도 내 집 빨래처럼 건어서 챙겨 주는 등 상부상조하며 지낸다. 단독주택에 사는 주부들이 대부분 집 보는 사람이 없으면 꼼짝없이 집을 지켜야하는 실정에 비한다면 주택관리측면에서도 장점이 많다.



<그림 1> 서당골 전경(자료: 주서령, 2000a)

서당골의 아이들은 유치원을 다니던 시절에 입주하여 20여년이 지난 현재 모두 성장하여 결혼적령기가 되었지만 아직까지 함께 살고 있다. 그동안 어느 집이나 외출할 일이 있을 때에는 아이들을 돌아가며 맡아주어 안심하고 바깥 일을 볼 수 있었고, 아이들끼리는 오랜 세월 함께 자라 친형제 이상으로 가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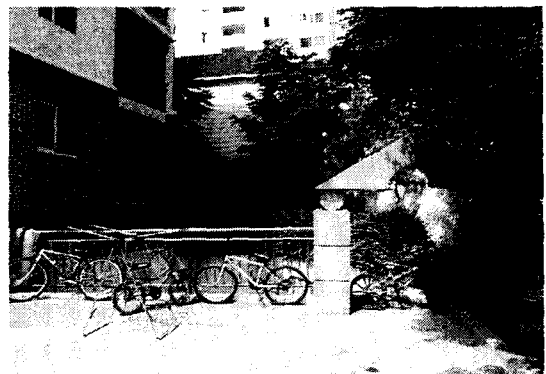
다고 한다(주서령, 2000a).

2) 안양 아카데미 테마 타운

아카데미 테마 타운은 1991년에 교수, 교사, 연구원 등 주로 학문연구를 하는 30대 중심의 사람들이 모여서 ‘공부하는 사람들의 삶의 터전’이라는 구상으로 시작된 25~35평 규모에 총 11동 88세대로 구성된 아파트 단지이다. 모두 넉넉하지 못한 경제 사정으로 개인적으로 주택을 구입하는 것보다 함께 돈을 모아 집을 공동 구입하는 것이 유리하다는 생각으로 처음에 54명의 회원이 뜻을 모아 출발하였으나 도중에 여러 가지 사정으로 인하여 총 입주세대 88세대 중 32가구만 초창기 회원이다.

이 공동주택에는 우리나라에서 보기 드물게 다양한 공동생활 시설을 설치하여, 어린이 놀이방, 공동아카데미 룸, 문화체육시설을 운영하고 있다. 공동생활시설은 모두 지하에 위치하는데 1동의 지하에는 어린이 놀이방, 7동의 지하에는 공동 아카데미 룸, 9동의 지하에는 공동 문화체육시설이 위치하고 있다. 이 단지에서는 육아문제를 공동으로 해결하기 위하여 놀이방에 자녀를 보내야하는 비슷한 연령대의 부모들이 모여서 공동 놀이방을 자치적으로 운영하기로 결정하였다. 주민들은 원장과 교사들을 고용하고 자모회를 통하여 자녀들의 교육 프로그램, 견학 행사, 식단 등을 의논하는 등, 교육에 직접 참여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다. 어린이 놀이방은 1994년 3월부터 자치 운영되었는데 특히 주민 중 교사부부가 많은 관계로 큰 호응을 얻었다. 그러나 아쉽게도 이 놀이방은 지하에 위치하고 있어 국가의 보조를 받을 수 없다는 법적 규제 때문에 운영측면에서 곤란을 겪다가 현재는 폐쇄되었다.

공동 아카데미룸은 34명 규모로 계획되어 세미나실, 독서실, 정보통신실 등의 세 공간으로 구성되어있다. 중앙에 위치한 정보통신실에는 팩스, 복사기, 컴퓨터 등 입주 당시에는 개인적으로 구입하기 어려웠던 사무기기들을 공동으로 비치하여 사용하며 양쪽 방에 세미나실과 독서실이 있다. 세미나실에는 음악, 문학, 영화 등의 분야에서 다양한 토론을 할 수 있도록 준비되었고, 독서실에는 공부할 수 있는 책상과 정기 간행물을 비치할 수 있는 책장이 구비되어있다.



<그림 2> 지하에 위치한 아카데미 테마타운 어린이 놀이방(자료: 주서령, 2000b).

공동 문화체육시설에는 200인치 대형 스크린, 전문 오디오 장비 등이 완비된 영화, 음악 감상실이 있다. 이 공간의 나머지 부분은 헬스클럽, 에어로빅실로 할애되어 주민들의 건강 증진을 도모하였다.

그러나 아쉽게도 아카데미 테마타운은 현재 초창기 회원들이 대부분 이동해 나가고 새로운 주민들이 이주해 들어옴으로써 초기 구성원들의 취지는 사라져 그 결속력과 공동활동은 거의 사라져 버렸다(주서령, 2000b).

2. 외국의 예

1) 미국의 사우스사이드 파크 코하우징(Southside Park Cohousing) 과 앤 스트리트 코하우징(N Street Cohousing)

사우스사이드 파크 코하우징은 미국 캘리포니아주 새크라멘토에 1995년 설립되었다. 주민의 구성은 25가구에 62명으로, 이중에 18세 미만의 어린이가 22명 포함되어 있다. 거주가구 중 15가구가 자녀와 함께 사는 가구이다. 이 단지에 거주하는 가족유형은 매우 다양하여 일반적인 핵가족 이외에도 동성애 가구, 독신자 가구, 성인의 동거가구가 전체 가구의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주민 중 17명이 석사학위를 소지한 고학력자들이고 소득은 저소득층부터 고소득층까지 고루 분포되어있으며 주택의 소유형태는 모두 자가(自家)이다. 이들은 처음부터 주민을 모집할 때 공동체에 살고자 하는 명확한 의지가 있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그림 3> 사우스사이드 파크 코하우징 공동생활시설의 외부 테라스(자료: 김혜진 외, 2003).

사우스사이드 파크 코하우징에는 여러 가지 운영위원회가 있어서 주민들이 각자의 흥미와 능력에 맞게 참여하여 주거단지의 관리에 직접 참여한다. 위원회 중에는 예를 들면 운영위원회, 건물과 택지관리위원회, 조정위원회, 공동생활시설관리위원회, 공동생활관리위원회 등이 있고, 그 외에도 식사담당조직, 안전담당조직, 아동보육조직, 노동조직 등도 있어서 단지의 원활한 운영에 참여한다. 공동식사는 일주일에 2~3번 저녁에 하며 나머지 날은 개별적으로 가족끼리 한다. 식사 당번은 개인별로 한 달에 1회 정도 돌아오고 한 팀이 3~4인으로 구성된다. 식사 내용 중에는

채식이나 아동을 위한 식단이 따로 마련된다. 주민들은 앞으로 공동시설로 공동 사우나, 주차장 확대, 손님방을 구비하기를 희망하였고, 면담한 17가구 중 코하우징에 사는 방식을 이웃에게 추천하겠다는 가구가 14가구나 되어 대부분 코하우징에서의 공동체 생활에 만족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었다(이경희, 2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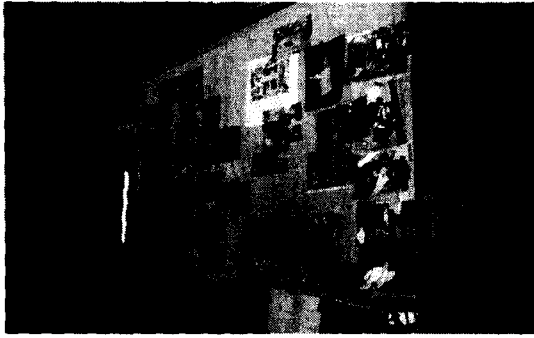
<그림 4> 사우스사이드 파크 코하우징 공동생활시설의 연주공간(자료: 김혜진 외, 2003).

앤 스트리트 코하우징도 역시 같은 새크라멘토 서쪽 외곽에 위치하고, 1986년에 완공되어 13가구가 살고 있다. 앤 스트리트 코하우징은 코하우징을 구성하기 위한 통상적인 절차를 거치지 않고 오래된 기존 주택단지에 있던 단독주택 16호 중 13호가 하나씩 담을 헐고 참여하여 이루어진 독특한 경우로, 우리나라의 기존 단독주택단지에서도 적용이 가능한 사례라고 생각된다.

앤 스트리트 코하우징의 공동생활시설은 13가구 중 한 주택의 후면을 개조하여 공동식당, 부엌, 회의실로 만들면서 현재의 모습을 가지게 되었지만 이 시설이 완성되기 전까지는 매주 일요일 저녁 한 접시씩 음식을 만들어 가지고 와서 함께 식사를 하였으며 차츰 희망하는 사람들의 신청을 받아 식사준비 팀이 뷔페형식으로 음식을 차리는 공동식사형태를 갖추었다. 공동식사장소로는 여름에는 옥외 테이블을 이용하고 겨울에는 차고를 임시로 사용하였으나 본격적으로 이 공간을 개조하여 공동생활시설을 만들었다. 여기에는 공동부엌, 공동식당, 회의실이 있다.



<그림 5> 앤 스트리트 코하우징 단지 전경(자료: 김혜진 외, 2003).



<그림 6> 앤 스트리트 코하우징 공동생활시설의 게시판(자료: 김혜진 외, 2003).

이 곳의 주민은 어른 36명과 18세 미만의 어린이 18명으로 구성되어있고, 이 중 부부와 자녀로 구성된 가구는 2가구뿐이며, 한부모가족, 독신가구, 그리고 이성파 동성의 동거가구 등 가족 유형이 매우 다양하다. 이 단지 내에는 동성에 가구나 한부모가족들이 포함되는 것을 환영할 뿐만 아니라 현재는 연령을 더 다양화하기 위하여 노인가구가 이주해 오기를 기대하고 있다.

거주자들의 교육수준은 박사 2명, 석사 7명, 그리고 학사 7명 등으로 사우스사이드 파크와 같이 고학력자들이 많다. 가구의 소득은 대체적으로 저소득층 또는 중간 소득층에 속한다고 볼 수 있다. 이 코하우징의 목표 중 특히 유의할만한 사항은 자원을 공동으로 사용하고 사람들의 상호관계를 증진시키며 다양성을 적극적으로 받아들여려고 노력하는 생활환경을 추구한다는 점, 어린이와 어른의 요구에 맞춰 동네 분위기를 매력적이고 안전하며 생태적으로 만든다는 점, 주민의 참여와 사회적 상호작용, 정서적 지원을 하기 위해 여럿이 참여하는 각종 축하모임, 행사, 의사결정과정을 유지 발전시킨다는 점 등이다.



<그림 7> 앤 스트리트 코하우징의 주민공동식사 (자료: 김혜진 외 2003).

주민들과의 면담결과, 공동체 생활과 관련하여 외부공간이나 편의시설, 이웃관계, 서비스의 분담 등에 대하여 모두 만족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몇 가구를 제외하고는 현재의 생활이 이전의 생활에 비해서 더 만족스럽다고 하였다(조재순, 2000).

2) 덴마크의 텡고든(Tinggården)과 예른스토베리에(Jernstoberiet) 코하우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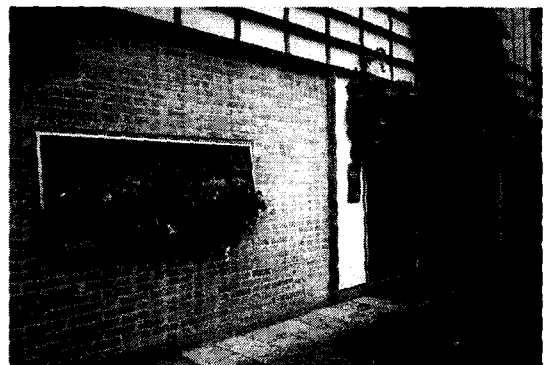
텡고든은 덴마크에서 역사가 오래되고 대규모인 코하우징 단지로 코펜하겐 근교인 쾨에(Køge)에 위치하고 있고, 1978년에 입주한 제1기 단지와 1984년에 입주한 제2기 단지를 합하여 총 169가구가 살고 있다. 이 곳은 대규모 단지라는 취약점을 개선하기 위하여 13가구를 소집단 단위로 구성하여 ㄷ자, ㄴ자 모양으로 계획한 클러스터(cluster) 형태로 되어있다. 텡고든은 덴마크의 다른 코하우징의 가구 수가 일반적으로 50가구 정도인 점에 비한다면 너무 큰 규모이기 때문에 한 단위당 40-60명이 공동생활을 하면서 살 수 있도록 계획한 것이다.

텡고든의 주차장은 단지의 외부에 배치하여 단지 내 차량통행을 금지하고 있다. 주민들은 출퇴근 시 가능한 한 차를 함께 이용하는 방법을 이용하기 때문에 차량 수는 일반 주택단지에 비하여 적은 편이다. 단지 안에서는 자전거와 보행만 가능하기 때문에 어린이들이 안심하고 뛰어 놀기에 적당할 뿐만 아니라, 각 주택의 부엌 창문을 통하여 보행도로를 바라볼 수 있도록 설계하였으므로 집안에서도 밖에서 놀고 있는 어린 자녀들을 쉽게 지켜볼 수 있다는 장점도 있다.

제2기 텡고든의 주택유형은 11가지로 1침실형부터 4침실까지 다양하지만 대부분 독립된 거실이 없는 LDK형으로 계획되어



<그림 8> 제1기 텡고든 코하우징의 개인주택과 공동마당(자료: 최정신)



<그림 9> 마당에서 노는 아이들을 바라다 볼 수 있는 텡고든 코하우징 개인주택 부엌의 창문(자료: 최정신)

있다. 또 18세 이상의 청소년들에게 적합한 기숙사형 주택이 15개 있다는 것도 특징이다. 이러한 소규모 주택은 독신자를 위한 것이며 대학의 기숙사 수준으로 부엌과 욕실은 공동으로 사용하게 되어있다.

각 군집마다 계획된 공동생활시설의 규모는 24-27명 정도이며, 긴 장방형 평면에 바닥 차를 두어 공간을 두 부분으로 구분하였다. 입구에 들어서면 왼쪽에 모임 공간, 오른쪽에 어린이 놀이방이 있으며, 계단을 몇 단 더 내려가면 세탁기, 건조기, 부엌 작업대가 배치된 공동작업 공간이 있다. 공동생활시설은 누구나 쉽게 와서 세탁도 하고 모임도 할 수 있도록 수수한 분위기이지만 어린이 놀이방은 다양한 색채로 칠하여 활기를 띄고 흥미롭게 만들었다. 이곳에서도 어느 코하우징이나 마찬가지로 가사활동은 순번제로 협력해서 하고 어린이 양육도 분담하여 하고 있다(김대년, 2000).

예른스토베리에는 로스킬레(Roskilde)에 오래된 주물공장 건물을 개조하여 1981년에 입주한 코하우징이다. 여기에 살고 있는 주민 21가구 중, 여섯 가구는 독신자 가구, 한 가구는 한부모가족, 3가구는 부부만 있는 가구, 나머지 11가구는 부부와 어린이가 있는 가구로, 가족구성이 매우 다양하다. 즉 이 코하우징에는 성인 35명, 18명의 어린이와 청소년이 살고 있다.

예른스토베리에는 처음 계획할 때 단지 전체의 지붕을 유리로 덮어 개별주택과 공동생활시설을 한 지붕 아래 조합시키는 계획안을 개발하였으나 그대로 실행되지는 않았다. 그러나 이러한 유리로 덮은 가로(街路) 계획안은 겨울이 길고 추운 스칸디나비아의 기후에 적합하여 이후에 다른 코하우징에서 일반화되었다.



< 그림 10 > 어른을 도와 공동부엌에서 식사준비를 하는 예른스토베리에 코하우징 어린이들(자료: 세계의 코하우징, 교문사, 2000, 76쪽 재인용).

예른스토베리에는 중앙 홀은 유리로 천장을 덮어 다양한 용도로 사용된다. 즉 현관과 비 오는 날의 어린이 놀이 장소뿐만 아니라 베트민턴 놀이장소로 까지 사용된다. 공동 식당의 2층에는 어린이 놀이방, TV실, 공동 거실, 작업실이 있다. 이곳의

주민들은 현재의 생활에 매우 만족하며 예른스토베리에 코하우징에 입주하기를 희망했으나 할 수 없었던 다른 가족들이 바로 인근에 입스고든(Ibsgård)이라는 새로운 코하우징 단지를 건설하였다(박정희, 2000).

III. 외국의 코하우징에 한부모가족이 많이 거주하는 이유

역사적으로 볼 때, 스웨덴에서 코하우징/ 콜렉티브 하우스(collective housing)에 관하여 어느 나라보다도 더 많은 연구가 진행되었고 특히 1980년대에 코하우징을 주제로 한 많은 논문들이 발표되었다. 코하우징의 역사를 기록한 책 중에서 가장 포괄적인 내용을 수록한 것은 1982년에 베스트브로(Vestbro)가 발표한 책이다. 코하우징을 '콜렉티브 하우스' 또는 '협동주거(co-operative housing)'의 일종이라고 본다면, 현대 코하우징의 기원은 19세기 사회주의자들이 사용하던 공동주거까지 거슬러 올라갈 수 있고, 더 위로는 플라톤(Platon)과 토마스 무어(Thomas Moor)의 유토피아 사상까지도 거슬러 올라갈 수 있다. 공동부엌에 개별 아파트가 있는 전통적인 스칸디나비아의 코하우징은 1930년대 기능주의자(functionalist)들의 전형적인 사고방식에서 나온 것이었다. 그들은 주택에서는 가사노동을 단순화시키고 충분한 휴식을 취하여 산업사회에서 생산성을 높이는 명확한 목표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효율적인 생활방식을 추구하였다. 따라서 고전적인 코하우징의 가장 중요한 목표는 여성 노동력을 해방하여 국가 경제에 생산적인 기여를 할 수 있게 하는 것이었다 (Vestbro, 1997). 이 당시의 코하우징은 주거공간은 좁았지만 부유한 전문가들이 살고자 자기들의 이상을 실현하기 위하여 54가구에 22명의 고용인을 두고 생활하는 수준이었다. 그 후 20년 동안 스웨덴에서 12개의 코하우징 단지가 세워졌으나 한편에서는 이러한 코하우징이 어머니의 역할이 적어져 모성(母性)이 상실(喪失)되고 결국은 청소년 범죄로 이어진다는 비판도 있어서 일시적으로 코하우징이 사회적 비난을 받기도 하였다. 이러한 코하우징에서는 서비스 직원을 두고 생활하였기 때문에 특권층을 위한 것이라는 오해를 받은 적이 있었고, 한편으로는 주민들의 소득이 증가하고 아이들이 커짐에 따라 개별 아파트가 너무 작아서 최초의 주민들은 이주해 나가고 대신 편모들이 입주해 들어오는 현상으로 변화하기도 하였다 (Vestbro, 1997).

1960년대의 코하우징에 대한 생각은 전통적인 핵가족에 대한 비판과 성역할에 대한 논의에 밀접하게 관련되어있다. 스웨덴에서는 기혼여성들이 남성들처럼 서비스료를 지불하는 고용인을 두고 가정생활을 영위하기를 요구했으나 이러한 유급고용이 과연 여성들을 진정으로 가사작업의 부담으로부터 해방시킬 수 있는가에 대해서는 많은 논란이 있었다. 또한 일반 주택에 사는 중산층 가족들은 개별적으로 가정부를 고용할 수 있는 재정적

능력이 없었기 때문에 가사노동의 양을 감소시킬 수 있는 주택의 합리화를 추구하고자 하였다. 이러한 시도들의 해결책으로 현실화된 것이 코하우징에서의 공동가사작업이었다(이연숙 외 3인, 1999). 코하우징에서는 공동의 생활방식을 통하여 생활비를 절약하고 주민들이 가사작업과 어린이 양육의 책임도 공동으로 맡지만 경제권과 직업은 외부에서 개인적으로 가지는 것이 기본이다.

1970년대 말에 나타나기 시작한 새로운 모델의 스웨덴 코하우징에서는 본래의 의도인 아동을 위한 좋은 환경, 인간적 동료애, 한 가구의 운영에 수반되는 가사노동의 단순화 등의 내용을 실현하기 위하여 다음의 4가지 원칙을 모델에 포함시킬 것을 권의하였다. 이 원칙은 ① 20~50가구의 규모, ② 공동가사작업, ③ 비경제적 투자와 주민들의 자치적 결정권 ④ 다양한 주민구성 등이었다. 이러한 아이디어를 처음으로 수행한 예가 1983년 스웨덴 에테보리(Göteborg)시 외곽인 베리쥘(Bergsjön)에 설립된 스타켄(Stacken) 코하우징이었고, 그 이후 스타켄은 다른 코하우징의 원천과 모델이 되었다(이연숙 외 3인, 1999). 이와 같은 과정을 거쳐 현재의 코하우징은 핵가족이나 독신자, 노인, 한부모가족 모두에게 보다 개방적인 형태로 변화하였다.

코하우징의 주민 구성은 북유럽이나 미국에서는 주로 고학력의 중산층이 많고, 어린이가 있는 양부모가족은 물론 한부모가족, 취업여성, 은퇴한 노인들을 중심으로 코하우징에 사는 것이 외롭지 않고 사교적일 수 있으며 자원낭비를 줄일 수 있다는 이점 때문에 그 수가 급속히 증가하고 있다(홍형욱, 유병선, 2003).

코하우징을 주택 소유권 측면에서 본다면, 자가주택, 조합주택, 공영임대주택 등 다양하다. 덴마크의 경우 개인소유의 코하우징에는 부부와 1-2명의 어린이로 구성된 가족이 많고, 공영임대 코하우징의 경우에는 가족구성이 보다 다양하여 어린이가 있는 양부모가족 이외에도 어린 자녀가 있는 한부모가족, 그리고 독신자가 많다. 이러한 가족구성의 차이는 개인소유의 코하우징에 살려면 주택비용을 충당하기 위하여 부부 모두 수입이 좋아야하고, 독신자나 한부모가족의 경우에는 공영임대 주택이 용자를 받아 임대료를 내기가 더 쉽기 때문이다. 개인소유의 코하우징에는 비교적 화이트칼라 층의 학자들이 많고 공무원들은 두 가지 형태의 코하우징에 모두 많다(최정신, 2000).

아직까지의 경험을 통해서 유추한다면 사람들이 코하우징에서 살기를 선택하는 중요한 이유 중의 하나는 가사작업의 단순화 욕구 때문일 것이다. 코하우징은 기술을 통해서가 아니라 주민들 간의 협동에 의하여 합리적인 가사작업 수행방법을 제안한다. 스웨덴의 많은 코하우징 연구자들은 외부 활동이 부자유스러운 노인들을 위한 주택과 코하우징을 통합하고, 코하우징 내에서 공동체를 위한 가사노동시간을 줄이는 대신 여가와 취미활동을 증가시키자는 실용적인 내용을 권장하였으며 코하우징이 어린이들과 청소년들에게 아주 훌륭한 사회적 환경을 제공할 수 있다는 것을 제시하였다.

이상의 경험에서 본 바와 같이 외국의 많은 한부모가족들이 코하우징으로 이주하는 이유는 자기 아이들에게도 양부모가족의 아이들과 같은 사회적 관계를 제공해 줄 수 있고, 조리나 자녀양육과 같은 실질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기 때문으로 생각된다(MacCament & Durrett, 1994). 고립된 소가족은 규모가 작고 가족이 모두 직업과 육아에 얽매이기 때문에 유능한 사회적 환경을 만들기가 어려우며, 특히 가사와 자녀양육을 둘이서 분담하는 양부모가족에서보다 혼자서 모든 일을 맡아야 하는 한부모가족의 경우에는 부담이 더욱 심하다. 미국의 건축가이자 코하우징 운동가이며 실천자인 찰스 듀렛은 자신이 직접 코하우징에 살면서 경험한 내용을 이야기하면서 '코하우징에 사는 부모들은 외동아이가 외로울까봐 둘째 아이를 가져야할지 고민할 필요가 없다. 내 외동딸의 경우에도 코하우징에서의 생활이 없었다면 더 할 수 없이 불행했을 것이다. 그러나 지금은 코하우징에 많은 또래 친구가 있고 그들과 함께 놀 수 있어서 다행이다'라고 피력하면서 코하우징이 주는 자녀양육에서의 장점을 들고 있다(찰스 듀렛, 2000). 한부모가족일 경우에는 이러한 혜택은 더욱 크다. 만일 직장에서 갑자기 중요한 회의가 있어서 늦게까지 일해야 하는 경우에도 코하우징에 함께 사는 다른 부모가 대신해서 아이를 학교에서 데려오고 돌보아 줄 수 있기 때문이다. 가사노동의 경감, 사교적 인간관계, 자녀양육에 유리한 환경과 같은 실질적인 이점들이 외국에서 한부모가족들이 코하우징에 살기를 선택하는 중요한 요인이 될 수 있을 것이다.

IV. 우리나라의 한부모가족의 코하우징에 대한 의견

우리나라의 한부모가족이 원하는 주거대안을 알아보기 위하여 코하우징에 대한 내용을 간단히 소개한 후, 한부모가족의 가정(家長) 4명을 심층면접한 내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1) 한부모가족의 가정으로서 가정생활을 운영하기에 가장 어려운 점.

'혼자 아이들을 기르면서 제일 어려운 건 애들이 아직 어린데 학교에서 돌아와도 내가 직장에서 늦게 오니까 돌봐줄 사람이 없는 거지요 그래서 학원을 보내고 싶어도 돈도 많이 들고 믿고 맡길 데를 찾기도 힘들어요(사례1)'

'난 한식당에서 일하는데 애들이 좀 크니까 혼자서 일해서 먹고사는 내 입장을 잘 이해는 해줘요 말도 잘 들구요.... 그러나 사춘기 애들이라 한창 예민한데 내가 매일 늦게 오니 애들과 함께 보낼 시간에 없는 게 항상 미안하고 아쉽지요(사례4)'

'난 남편하고 사별했는데 아들이 24살이라 다 컸지요 아들이 벌어서 살구요 그러나 가끔은 이렇게 남편 없이 혼자 사는 것이 외로워요(사례2)'

응답자 모두 공통적으로 자녀교육과 경제적 어려움을 들었

다. 특히 자녀들이 어린 경우에는 학교에서 돌아온 후의 시간활용을 잘 못하고 있고 아직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하지만 비용이 저렴하면서 믿고 맡길 수 있는 곳이 없어서 어렵다고 하였다. 사춘기의 자녀를 둔 경우에는 어머니가 직업을 가져서 집에 있는 시간이 없기 때문에 자녀와 함께 할 시간이 적은 점을 아쉬워하였다. 또한 연령이 조금 높은 응답자의 경우에는 본인 자신의 외로움을 견디는 것도 어렵다고 하였다.

2) 한 부모 가족으로서 살고 있는 주택이나 주생활과 관련하여 어려운 점.

'우리는 단독주택에 살아요 그런데 주변환경이 안 좋아 항상 문을 닫고 살아요 그리고 외출할 때나 내가 직장에 나가있을 때 아이들이 어리니 애들에게 열쇠를 맡기기도 어렵구 그래요(사례1)'

'집안에 남자가 없으니 집안 손질이나 가전제품이 고장났을 때는 막막해요 나는 워낙 기계는 잘 몰라서요...(사례4)'

주택관리에 대해서 현재 단독주택에서 살고 있는 경우는 주변환경이 별로 좋지 못하여 항상 문을 닫고 살아야 하고, 어린 자녀들에게 함부로 열쇠를 맡길 수 없는 점을 들었다. 그리고 남성의 손길이 비교적 많이 필요한 집수리와 가전제품의 고장수리에 대한 불편함을 들었다.

3) 한 부모 가족으로서 자녀양육을 한 단지 내에서 부모들이 당면제로 돌아가며 맡아주는 일.

'아이들이 어려서 누군가 손길이 필요한데 한 단지 안에서 엄마들이 돌아가며 애들을 돌봐준다면 너무나 안심이지요 그런데 만일 내 차례에 직장에서 늦게 오는 일이 생길까봐 그게 걱정이에요 그리고 애들 공부 봐 주는 건 엄마들이 하기는 힘들니까 과외 선생님을 두고 함께 하면 좋겠네요 비용도 나눠낸다면 부담도 적구요(사례1)'

공동 육아에 대해서는 모두 매우 호의적이었고, 특별한 희망 사항으로는 아이들을 방과 후에 학원시간도 챙겨서 보내주고, 공부도 돌봐준다면 더욱 좋을 것 같다고 하였다. 그러나 대부분 당면제로 돌아갈 때 본인의 차례에 직장에서 퇴근 시간을 맞추기 어려울까봐 걱정하였고 그런 경우를 대비하여 본인의 책임을 대체할 수 있는 선생님이 있으면 좋겠다고 하였다. 그리고 학업지도 등은 본인이 하기 보다는 공동으로 선생님을 두는 것을 희망하였다.

4) 한 부모 가족으로서 식사준비 등의 가사활동을 한 단지 내에서 부모들이 당면제로 돌아가며 하는 일.

'한달에 한 두번만 식사당번하고 나머지 날에는 밥 안하고도 먹을 수 있다면 대 찬성이지요 그 시간에 애들하고 보낼 수도 있고요.. 공동 식당에서 내가 없는 새에 애들 간식까지 챙겨줄 수 있으면 더 좋겠어요(사례1)'

'저녁메뉴는 주민들 의견을 모아서 짜면 좋겠어요 그리고 식당과 부엌도 깨끗하게 관리하구요 난 애들 공부 못 봐줘도 밝히는 건 자신 있거든요(사례3)'

공동취사와 식사에 대해서는 한 달에 1~2회 식사준비로 한 달을 편히 보낸다면 가사노동의 스트레스에서 벗어나고, 식사준비를 하는 시간에 자녀들과 시간을 유익하게 보낼 수 있을 것 같아 아주 좋은 생각이라고 하였고, 더욱이 이러한 시스템에서 오후 간식을 여러 가지 준비해두었다가 각자 먹고 싶은 것을 골라 먹을 수 있게 한다면, 저녁 메뉴를 각자 먹고 싶은 것을 한 달에 한번 정도 조사하여 선택할 수 있다면 훨씬 좋을 것 같다고 하였다. 그리고 식단을 기호에 맞게 작성하고 식단을 청결하고 위생적으로 운영하면 좋겠다고 하였다. 응답자 모두 식사당번 참여에 대해서는 자녀양육에서보다는 좀 더 자신감과 적극성을 보였다.

5) 코하우징 내에서는 여러 가지 작은 단체가 있고 누구나 공동취미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데, 예를 들면 운동, 원예, 여행, 음악감상, 영화, 목공, 바느질 클럽 등이 있고 주민의 희망에 따라 다양하게 운영할 수 있다. 응답자들이 코하우징 내에 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 공동활동은 매우 다양하였다. 원예, 등산, 서예, 그림 그리기, 헬스와 스포츠댄스, 영화감상 클럽, 종교활동을 원하였고 작은 텃밭이 있어서 주민들이 함께 야채를 재배하는 것, 그리고 애견동호회도 있으면 좋겠다고 하였다.

6) 코하우징 내에는 공동부엌, 공동식당, 공동거실, 공동세탁실, 어린이 놀이방, 공동 취미활동실, 운동실, 목공실, 손님방, 온실 등의 공동생활공간이 있는데 응답자들이 원하는 공동생활공간으로는 아직 자녀들이 어리다보니 공동으로 이용할 수 있는 도서관, 공부방, 컴퓨터실, 놀이터를 많이 원하였고 취미실, 소극장, 공동미용실, 공동세탁실, 공동식당, 공동거실이 있으면 편리하겠다고 하였다.

7) 한부모가족의 주거대안으로 특히 정부나 사회단체에서 지원해 주었으면 하는 내용.

'내가 직장에서 일이 많아 가끔 늦게 오는 날이 있거든요 애들이 어리니까 그럴 때 애들을 맡길 곳이 필요한데 그게 아주 어려워요(사례1)'

응답자들은 대부분 경제사정이 어려우므로 임대주택 지원과 주거비 지원, 자녀교육비 지원을 모두 원하였다. 그리고 직장관계상 어머니가 집에 없는 밤에도 자녀들을 급히 맡길 수 있고, 퇴근시간 전까지 자녀들이 학교 갔다 온 후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이 주거단지 내에 있기를 가장 원하였다.

8) 코하우징을 우리나라에 도입한다면 거주희망.

'우리나라에 그런 게 들어올 수 있을까요? 그렇지만 만일 생긴

다른 거처서 살고 싶어요 그렇지만 한편으로 우리 사회에서 그런 곳에 우리 같은 사람들만 모여 산다면 차별할까봐 걱정이 되기는 해요(사례1)

'그런 집이 있다면 주택관리비가 적게 들었으면 좋겠네요 집 값도 싸구요(사례4)

'같은 나이때래 이웃끼리 어울릴 수 있다면 외로움도 덜고 좋겠어요(사례2)

'아직 모르겠다'고 응답한 사례3을 제외하고는 모두 거주 의향이 매우 많다고 하였다. 참고적인 요구사항으로는 이러한 코하우징에서 같은 연령대의 이웃들과 어울릴 수 있고, 집 값이 저렴하고 운영비가 적게 들었으면 좋겠다고 하였다. 그리고 한부모가족에 대하여 편견이 없는 사회적 여건이 되기를 희망하였다.

V. 결론 및 제언

현대사회에서 한부모가족은 증가추세에 있고 한부모가족이 된 이후로 경제적·사회적 여건은 더욱 악화되는 현상이 일반적 특성이므로 이들을 지원하기 위한 법적 근거가 조속히 마련되어 이들의 자립능력을 도와주어야 문제의 악화 및 장기화를 예방할 수 있을 것이다.

현재까지 우리나라에서 실시되고 있는 한부모가족을 위한 지원책으로는 생활보호법에 의한 정부로부터의 생계지원인 경제적 지원이 있고, 민간 차원인 종교단체, 민간단체, 여성단체로부터의 상담 등을 통한 사회적, 정서적 지원이 있다. 정부에서는 생계지원자에게 곡량지원, 부식비, 연료비, 중학생 수업료 면제, 취로사업알선, 의료보호 등을 제공한다 (김정자 외 5인, 1984). 이와 함께 사회복지 서비스 부문에서 영세 모자가족이 이용할 수 있는 시설로 모자보호시설(모자원)과 부녀상담소 등의 부녀복지시설이 있다. 경제적으로 극빈한 모자가족은 아동복지법에 의해 모자보호시설에 입소하면 3년 간 이곳에 거주하면서 작업을 하여 생계지원을 받고 자녀의 수업료 면제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그러나 극빈한 한부모가족의 경우에도 모자원의 입소자격에 해당되지 못하여 이용하지 못하는 경우도 많고, 설령 자격이 맞는 경우에도 직업상 현 거주지를 옮길 수 없거나 자녀양육 환경이 부적절하여 입소를 원하지 않는 경우도 허다하다. 또한 한부모가족이 모자원 등의 시설에서 거주하는 경우에 집단시설에서 오는 역기능적 문제점이 발견되고, 특히 아동에게는 가정이 인간생활의 최상환경이라는 점을 감안한다면 시설보다는 일반 가정에서 자녀들이 성장할 수 있는 조건을 지원해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러한 경향은 사회복지 서비스에서 탈 시설화 운동으로 가고 있는 전 세계적 추세와도 상응하는 문제이다.

외국 선진국의 경우에도 정부차원에서 한부모가족을 위한 여러 가지 지원책이 마련되어 있으나 주택에 대한 지원책은 찾아보기 드물고, 국가적으로 한부모가족의 구성율이 매우 높은 스

웨덴의 경우에만 독특하게 주택수당 우선지급을 하고 있다(김정자 외 5인, 1984). 우리나라 한부모가족의 자가 소유율은 평균보다 훨씬 낮으며 방 당 거주밀도도 높아서 전체적으로 주택문제가 심각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그러므로 현재 지원하고 있는 모자원 시설의 지원 문제에만 한정하지 말고 탁아서비스, 학령기 아동을 위한 학습지도, 집단활동지도, 가족문제상담 등을 병행하여 한부모가족의 생활안정과 자녀양육을 위해 유용한 지원책이 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모자원 이외에 우리나라에서 한부모가족의 지원책 중 주거대책에 속하는 것으로는 유일하게 국민가정을 대상으로 하는 영구임대주택 입주지원이 있다. 본 면접자료에서도 나타났듯이 모두 임대주택 지원을 정부에 요구하고 있으므로 주택건설시 한부모가족이 입주할 수 있는 영구임대주택의 비율을 점진적으로 증가시킬 필요가 있다고 본다.

따라서 앞으로는 아직까지 우리 사회에서 실시되어온 국민모자가정만을 대상으로 하는 구빈적(救貧的) 수준에서 벗어나 한부모가족의 주거지원을 함에 있어서 모자원 시설의 증설보다는 임대주택의 우선배정, 저렴한 국민주택의 보급에 역점을 두어야 할 것이다. 그리고 보다 나은 삶의 질을 생각한다면 한 공동체 안에서 독립된 가정생활을 유지하면서 다양한 가족 구성원들과 함께 어울려 살 수 있고, 자녀에게는 건강한 양육환경을, 부모에게는 가사노동의 부담을 제공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도 한부모가족들에게 코하우징의 생활은 권장할만하다.

특히 우리나라와 같이 부동산 가격의 변동이 심하여 재산문제에 예민한 경우, 자가주택보다는 한부모가족을 위해서 분양하는 임대주택의 일정부분을 코하우징 형태로 운영해 보는 것도 바람직한 시도라고 본다. 그리고 면담자료에서 언급된 바와 같이 한부모가족에 대한 사회적 편견과 차별 같은 가족외적 제약도 한부모가족의 주거생활을 위축시키는 요인이라고 볼 수 있으므로 다양한 주민구성을 가진 코하우징도 이러한 문제점의 해결에 다소간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 코하우징이라는 주거대안이 외국에서는 의식이 열린(고학력, 고소득) 사람들 중심으로 시작하였다가 점차 다양한 형태의 가족이 어우러져 함께 사는 지역공동체로 자리 잡고 있는데 비해, 우리나라의 예로 든 동호인 주택은 고학력에서 출발한 것은 비슷하나 가족형태의 다양성이 결여되어 있다. 우리나라에서 코하우징이 한부모가족의 주거대안이 되기 위해서는 한부모가족이 코하우징의 다양한 이웃으로 환영받아야 하며 이것은 한부모가족에 대한 사회적 편견과 차별이 극복되어야 함을 전제로 한다고 본다. 그리고 특히 최근에 사회문제화되고 있는 연간 2만명 이상 발생하는 미혼모와 이들 가운데 50%가 넘는 십대 미혼모들이 서로 도우며 자녀를 양육하고 사회생활을 할 수 있는 주거대안으로도 코하우징을 고려할만할 것이다(조재순, 2003). 다만 이들 미혼모 가족을 포함한 한부모가족용 코하우징의 거주자 구성을 어떻게 할 것인가가 다양성을 추구하는 코하우징의 특징과 관련하여 생각할 과제로 남는다.

- 접수 일 : 2003년 09월 02일
- 심사 일 : 2003년 09월 20일
- 심사완료일 : 2003년 10월 10일

【참 고 문 헌】

- 김대년(2000). 덴마크 최초의 대규모 코하우징 텅고든, **세계의 코하우징**, 61-70. 서울:교문사.
- 김정자·임선희·유희정·윤연숙·김영옥·이문진(1984). 편부모가족의 지원방안에 관한 기초연구. 여성개발원 조사연구보고서, 200-4.
- 김혜진·방선희·주민구·최선숙(2003). 미국 코하우징과의 비교를 통한 우리나라 동호인주택에 대한 발전 및 활성화에 대한 대안모색. 가톨릭대학교 2003년도 해외문화탐방 보고서, 미간행.
- 박정희(2000). 공장건물을 개조하여 만든 코하우징 예른스토베리에, **세계의 코하우징**, 71-79. 서울:교문사.
- 변화순(1996). 이혼가족을 위한 대책연구. 여성개발원 조사연구보고서, 200-18.
- 이경희(2000). 주민이 직접 관리하는 마을 사우스사이드 파크코하우징, **세계의 코하우징**, 102-117. 서울:교문사.
- 이연숙·김미희·손승광·오찬욱 역(1999). 주택형태의 개발, **스웨덴의 주택연구와 디자인**, 233-242. 태림문화사.
- 조재순(2000). 기존주택단지형 코하우징 앤 스트리트 코하우징, **세계의 코하우징**, 131-144. 서울:교문사.
- 조재순(2003). 한부모가족의 생활지원 주거대안 토론자료. **한국가정관리학회 2003춘계학술대회 논문발표집**, 124.
- 주서령(2000a). 도심 속의 쉼터 서당골, **세계의 코하우징**, 214-220. 서울:교문사.
- 주서령(2000b). 공부하는 사람들의 공동체 안양 아카데미 테마타운, **세계의 코하우징**, 221-232. 교문사.
- 찰스 듀렛(2000). 서론, **세계의 코하우징**, 5-7. 서울:교문사.
- 최정신(2000). 실례의 종합, 덴마크의 코하우징 공동체, **세계의 코하우징**, 30-41. 서울:교문사.
- 홍형옥·유병선(2003). **주거관리론**, 187. 서울:교문사.
- MacCament, K. & Durrett, C.(1994). *Cohousing: A contemporary approach to housing ourselves*. Ten Speed Press.
- Morris, E. W. & Winter, M.(1978), **Housing, Family and Society**, John Wiley & Sons, 102.
- Vestbro, D. U.(1997). Collective housing in scandinavia -How feminism revised a modernist experiment. *Journal of Architectural and Planning Research*, 14(4), 329-342.
- 주) 본 논문에 실린 사진의 출처: 그림 1.2 는 주거학 연구회 (2003), **세계의 코하우징: 교문사** 중 주서령 집필분 '서당골'과 '안양 아카데미타운'에서, 그림 3,4,5,6,7,은 김혜진 외 3인(2003), 가톨릭대학교 해외문화탐방 보고서에서, 그림 8,9는 연구자 최정신 작성, 그림 10은 주거학연구회(2003), **세계의 코하우징: 교문사**, 76쪽에서 재인용하였음을 밝힙니다.